

대학 내 여성주의 연대모임(가) 1차 모임 보고

참가단위 : 경희대 총여, 중앙대 흑석 총여, 중앙대 안성 총여, 국민대, 항공대 여성학회 준비 모임, 전학협 여성위원회, 전여대협

▶단위활동보고

-참가 단위의 요즘 활동을 총화했습니다.

▶보고안건

-재정 : 3.8 문화제 재정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논의 안건

1. 연대모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는가

(위상 및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려다가 잘 얘기가 안 되어서 주제를 바꾸어 얘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위상 및 체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2. 위상 및 체계

1) 위상

①여성문제에 대해 공동투쟁할 필요가 있다

②2002년 한 해 동안 3.8 투쟁 때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해 함께 투쟁해나간다. 그리고 나서 평가 후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그 때 논의한다.

③서로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토론도 조금씩 진행해나간다.

2) 체계

매 사업과 투쟁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역할을 분공하여 수행하고, 매 사업과 투쟁 사이사이에 책임적인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간부를 구성한다. 대학 간부들이 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전학협 여위와 전여대협 간부가 하는 것으로 한다.

3. 모임 이름 정하기

논의를 하였으나 적당한 게 나오지 않아 다음 모임 때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업계획

1) 여성노동권 투쟁

현재 노동법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한다.

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토론회 등은 이후에 계획한다.

2) 성매매특별법 제정 투쟁

현재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총화해보자

-전여대협 간부에게 분공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2주에 한 번 씩 진행한다. 참가하는 각 단위가 돌아가며 주체를 맡고 전 단위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처음으로 5월 7일 12~2시까지 용산역에서 중앙대 흑석 총여학생회가 준비하여 진행한다.

3) 여성과 통일

6월 초에 여성과 통일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자.

4) 전쟁반대

내부 세미나를 먼저 진행한다. 그리고 난 후에 방향을 모색한다.

내부(모임에 주체로 참석하는 사람들) 세미나는 전쟁, 군대, 징병제 그리고 여성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5) 여성의 정치세력화

선거에 즈음해 5월 중순부터 고민해나가기로 하자.

6) 교수 성폭력 근절과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실천

교수 성폭력 관련해서는 흐름을 함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자.

인터넷 내용 등급제 관련해 현재 정세가 조성되지 않고 상황에 이 모임에서 흐름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합의하였다.

7) 기타

박근혜와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성명을 내지는 안에 대해 내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5월에 제출하자고 결정되었음.

이후 연대모임 차원의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는 일들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자고 하였음.

▶다음 모임

5월 7일 투쟁 마치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